독서클럽 최종보고서

HODL 팀

선정도서: 비트코인 지혜의 족보

2022.3.21~ 2022.6.7

**1주차**

**1. 비트코인은 화폐본능과 화폐의 내재가치가 있는가?**

**김부리**:

내재가치란 기업의 현재 영업이익과 성장속도와 확장성 등이 통합적으로 계산되어 수치화되는 것으로, 고정된 상수가 아닌 변수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산업에 의해 수요가 증가해왔으므로, 내재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하연**: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였다. 실제 사례도 있듯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이나 불안정한 정세에서 더 이상 달러도 안정적인 자산이라 할 수 없다. 비트코인은 어디에서나 송금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효준**:

비트코인이 화폐 본능과 화폐의 내재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화폐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과거 화폐 개념의 본질은 거래의 수단으로써 효력이 있었다. 인류 초기엔 조개껍데기 등으로 실물자산 거래를 대신에 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후 금을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했다. 그러나 금의 한정적인 수량과 무게가 유동성 저하를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경우 어떠한가? 통용화폐로 사용되는 종이 벌목량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종이 화폐보다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

**2. 가상자산에 관심이 생긴 이유**

**정하연**:

중앙 집권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성격의 비트코인은 마치 기존의 고전적인 경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자유도가 높은 매력적인 자산이다.

**김부리**:

최근 많은 유명인사들이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그 투기성에 대해 경고하고, 또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패턴으로 가격이 상승해왔다고 볼 수 있기에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효준:**

가상자산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전 제 주위 친구들이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어 알게 되었다. 물론, 중학교 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알고 있긴 했지만 실체가 없는 투기성 자산으로만 치부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서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쌓였고 비트코인에 대한 해외 ETF 상품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도 금융상품이기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방식을 알고자 가상자산에 대해 학습했다.

**2주차**

**1. 비트코인과 네덜란드 튤립거품과의 차이점**

**김부리**: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빠르게 빠져나오고 후발주자들은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자 공황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자산 부류이다. 비트코인은 튤립처럼 쉽게 시들고, 어떤 꽃이필지 예측불가능하며, 도난이 쉽지 않다. 튤립 시장보다 비트코인 시장의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보안성도 뛰어나다. 튤립이 통화처럼 잠시 쓰였던 것과, 디지털 통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다르다.

**정하연**:

튤립 파동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과열 투기 현상으로, 사실상 최초의 거품 경제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비롯한 시가 자산의 가격이 투기에 상승하고 자산 가격 상승이 유인되어 새로운 합작을 끌고 있는 상태의 경제를 말한다. 튤립 거래의 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일괄 무효가 되었고, 소수의 파산자와 벼락 부자를 남긴 채 튤립 마니아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네덜란드의 튤립파동은 일시적이고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 반면 비트코인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라고 보기에는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코이너들도 꽤 많고,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급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효준**:

네덜란드 튤립 사건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튤립 구근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니었던 점이다. 또한, 당시 경제적 호황이었기에 사치품이 성황리에 거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 단순 고소득층들의 여흥 거리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 ‘피자데이’ 사건이 있으며 경제적 호황이 아니라 경제적 불황 속에서 생겨났다. 게다가 비트코인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로 인해 신뢰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3주차**

**1. 비트코인 100% 채굴 후 일어날 영향**

**김부리**:

채굴은 비트코인을 생산하는것이라 생산이 끝나면 희소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PoW 방식이기 때문에 갈수록 채굴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정하연**:

이제 더 이상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은 적어지고 코인의 가격은 희소성에 따라 상승할 것이다. 아마 제 2의 금과 같은 자산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효준**:

비트코인이 다 채굴된다면 상대적으로 채굴에 대한 보상이 없어 채굴자 포지션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거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확실한 희소 자원으로 분류되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4주차**

**1.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김부리**: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코인을 뜻하며, 일종의 지표로서 활용하거나 다른 코인과의 중간 매개체, 그리고 실물 자산과의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력에 의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안전하다.

**정하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화나 한국 원화 등 법정화폐를 담보로 같은 가치만큼 코인을 발행한다. 대표적으로 테더사의 유에스디티(USDT), 서클의 유에스디시(USDC) 등이 있다.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시중의 코인을 담보로 가치를 유지한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메이커다오가 있다. 금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골드(XAUT)도 있다. 가치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일정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한 가격 변동성에 따른 코인 결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실제 오프라인 결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심효준**:

스테이블 코인이란 법정화폐로 표시한 가격이 변하지 않으며 안정화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고 보인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존 법정화폐가 금본위제를 사용한 것처럼 법정화폐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발행량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면 수요대비 담보가 부족해 가격방어가 안 될 수 있다. 또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인 탈중앙화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는 각 노드 간 거래증명을 통해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 주체가 특정 회사로 국한돼 있어 해당 회상의 재무적 문제 등이 발생하면 안정성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단순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